



# “한 권만 팔려도 공부하는 이에 도움된다면...”

##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경서원** 수필가 윤오영 선생의 수필집 <곶감과 수필>에 수록된 '방망이 깎던 노인'은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윤오영 선생은 무뎠지만 묵묵히 전통 방식으로 방망이를 깎던 노인의 장인정신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념, 애달픔도 함께 섞어놓았다. 서울 조계사에서 바로 조금만 걸거리 나오면 '경서원(대표 이규택·사진)'이라는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아담한, 3평이나 넓기하는 책방이다. 간판은 너무 오래 돼서 그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옛날 책방은 이랬더라' 싶어서 기웃거리다 보면 '책방 경서원'은 꼭 시간 여행의 통로처럼 느껴진다.



###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

“사명감,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꼭 이쪽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출판도 하다가 쉬고 반복하기도 했고... 어찌 보니 이렇게 오래됐네요.”  
 머쓱하게 웃으면서 꾸밈없이 말하는 이 대표. 손님들도 그의 답을 듣는 지 가끔 책방에 들러서는 반갑단 말 대신 “아직도 출판 하나냐”고 말한단다. 물론 그 속에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직도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이 숨어있을 테지만.

경서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도서가 오경웅(John C.H.Woo)이 엮고 류시화가 번역한 <선(禪)의 황금시대>다. 저자 오경웅이 중국 선사들의 일화를 엮어 선(禪)의 정신을 알린 이 책은 1986년 초판을 발행했고 2005년 재간행, 10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책에 대한 이 대표의 애정도 특별하다.

“한번은 저자 오경웅씨의 딸이 우리 책방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책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표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원본에 쓰였던 그림을 표지에 그대로 살려 썼다면서, 그걸 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경서원에서 출판한 책 250여종의 목록을 보면 <선의 황금시대>는 줄 수 있는 편에 속한다. 일본·인도·티베트 불교 서적 번역본에서부터 학술서적을 주로 만들어내는 출판사다 보니, 선택된 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는 출판사가 아닌가 싶다. 이 대표에게는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출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처음 책 만들 때, 공부하는 불자들이 많아졌을 했어요. 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불자 지식인들을 많이 키워야겠다고 싶었고요. 그래서 학술 서적을 많이 만들어냈지요.”

학술서적들의 판매고는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이 대표는 “어떤 책은 300권 찍어 10년도 더 팔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도 어찌, 만

들어가지.”

그렇다고 이 대표가 ‘쉬운 불서’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다양하게 출판 때 각각 각색의 취향을 가진 독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다만 그의 고집은 ‘불교 학술서적’ 내는 작업의 한 축을 맡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팔리는 책이든 아니든. 누군가는 사서 두고두고 볼 책을 만드는 것이 그의 출판 목적이기 때문이다.

### #머느리에게 물려주기로 했지

이 대표는 요즘 출판 일을 혼자서 모두 맡고 있다. 사실은 인근 대형 서점에서 책 주문이 들어오면 그 배달까지 함께 하고 있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취미생활 삼아 생각하면 힘들 것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는 5개월 전부터 이렇게 혼자 해 온 일들을 머느리 김현희씨에게 조금씩 전수하고 있다. 그의 책상 앞에 빼곡히 불은 연락책, 전표, 출판기획서들이 이제 대를 물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3대, 4대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던데 그게 참 부러웠어요. 특히 이 책방과 출판사를 꼭 대를 이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느리가 뜻을 이어받게 됐어요.”

그는 정말 즐거움 듯 활짝 웃어보였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킨 이 대표의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학인 스님과 경서원의 향수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서원의 이름이 날을 수 있다는 것이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다.

“경서원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왔습니다. 만약 특별 리면서 일을 해왔다면 결코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게 책방과 출판사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오소라즈니쉬 강의·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1999  
 조계종 포교사단 임희웅 전문포교사

## “심리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해”

불자라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 역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많이 헤매고 있으며, 많은 경전들과 선학 및 조사님들의 어록들을 들추면서 그 때 그 때 자신을 채찍질해보지만 너무나 막연하고 자꾸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행어나 하고 책방을 찾곤 한다. 어느 날 책방 책꽂이에 서 <서양의 붓다>를 발견하고 몇 장을 들추다가 머리에 신선한 스침을 느끼게 하는 구절들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 탐독하면서 나의 불교 공부에 많은 것을 이론적으로 개념화 하는데 도움을 받았음은 물론 평생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실행생활을 체계화하였으며, 포교 활동과 교육활동에도 많은 도움과 확신을 준 좋은 길잡이가

전체가 짙어진다. 짙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어 ‘만들어진 신’에서는 “신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지만 신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제 나는 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 그가 나를 도와 줄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다. 나를 도울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기도란 자연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대가 자연과 보조를 맞춘다면 자연도 그대와 보조를 맞춘다. 다른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기도다. 그대의 기도를 듣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우주와 보조를 맞춘다면 우주 또한 그대에게 협조한다. 그 외에 다른 기도는 없다.



## 깨달음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신선하게 다가와 포교·교육활동에 많은 도움과 길잡이 역할

되어준 책이기에 소개하고 싶다.  
 책에 나오는 몇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다. ‘자신이 먼저 변화야 한다’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에 가고 절에 가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그대이지 상황이 아니다. 상황은 똑 같다. 절 밖에 있어도 절 안에도 부처(원문에는 신으로 표기되어 있음)는 있다. 부처는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그대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장소를 바꾼다. 그대는 집을 떠나 절에 가서 부처를 찾는다. 내적인 변형이 필요하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심리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세상

가게 가서 방황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고대 티베트의 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신(진리)이 아무리 그대를 찾아와도 그대 안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신이 그대의 문을 두들긴다. 하지만 주인이 외출 중이다. 그는 항상 다른 곳에 가 있다. 신을 찾아가길 필요가 없다. 그저 집에 있어야 기다리면 그가 올 것이다. 신이 그대를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듯이 신 또한 그대를 찾고 있다. 집에 머물러라. 그래서 신이 왔을 때 그대를 볼 수 있게 하라. 신은 수 없이 그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대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

내 인생의 불서 '한 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폭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폭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를 왕망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연구소,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헬스클럽, 단상사무소, 안경점, 시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 어머니는 아들 형제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관직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증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 평생부지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달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가 들어있고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만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